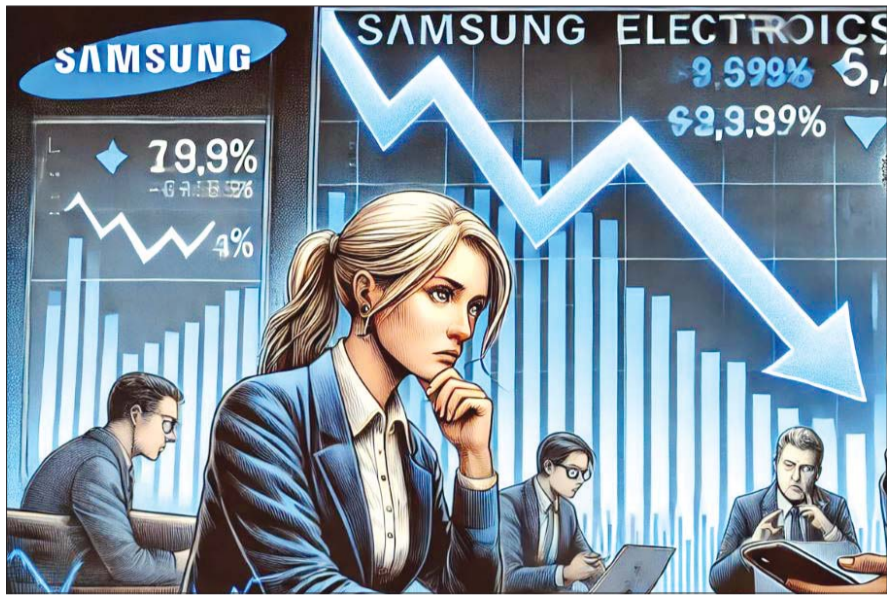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잇따라... 저가매수 평가는 '여전'

평균 목표주가 약 7만7077원
13개 증권사, IT 수요 침체 영향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낮은 밸류에이션... 매수 의견 유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에 투자를 고민하는 외국인 이미지.

새해 코스피 지수가 반등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연일 하향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가매수' 구간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한 증권사는 총 13개로, 이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주가는 약 7만7077원에 그쳤다. 13개 증권사의 하향 전 삼성전자 목표주가 평균인 8만3769원과 비교해서 8% 가까이 낮춘 것이다.

증권사들 중 목표주가를 가장 크게 내린 곳은 한화투자증권으로 9만원에

서 7만3000원으로 18.89% 낮췄다. 이미 7만2000원으로 목표주가를 낮게 잡았던 iM증권이 7만1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재설정하면서 13개 증권사 중 가장 낮은 변동률(-1.39%)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8만3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7% 내린 한국투자증권은 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증권가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이라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

PC 등 IT 수요 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채민숙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IT 하드웨어 세트 수요는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초중반 퍼센티지(%)의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망하며 "4분기 매출액은 74조5000억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으로 컨센서스 매출액(77조9000억원)과 영업이익(8조9000억원)을 각각 4%, 18%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개 증권사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 시기도 올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대내외적 수급 유입 요인은 충분하다며 '저가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 3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51억원

순매수했으며 삼성전자 주가도 전날보다 1000원(1.87%) 오른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을 12조922억원어치 담았음에도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주가를 매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개인투자자 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다.

목표주가 '유지' 의견을 낸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3% 하향 조정한 7조7000억원을 제시하면서도 "글로벌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다"며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PBR 1배가 자사주 매입까지 결정하는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밸류에이션 콜(저가매수)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부진... "고환율이 주요 요인"

10대 증권사 지난해 1~3분기 거래이익
11조1836억... 전년비 11.01% 줄어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환율 지속 전망

고환율 여파로 지난해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0대 증권사의 외환거래 이익은 11조1836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5679억원) 대비 11.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환거래 손실은 11조2213억원으로 11.33% 줄었으나,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 전체 외환거래에서 3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

은 외환거래 이익 3조1782억원을 올렸으나, 외환거래 손실이 3조3049억원에 달해 순손익에서 12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112억원)보다 손실 폭이 확대된 규모다. 미래에셋증권도 외환거래 이익 1조1429억원, 손실 1조1800억원을 기록하며 -37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332억원), 키움증권(-295억원) 등 다수의 증권사가 외환거래에서 손실을 면치 못했다.

일부 증권사는 외환거래에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나증권은 4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전년 동기(519억원) 대비 90.75% 급감했다. NH투자증권은 781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 40.23% 감소했다. KB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33.05%, 14.5% 줄었다.

메리츠증권만 4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27억원)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증권사 외환거래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거래 이익에는 보유 채권, 주식, 외환(FX) 거래, 환산 손익, 매매 이익 등 외환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손실 항목에는 대차 거래나 외화 차입 채권의 평가 손실 등이 반영된다. 증권사들의 운용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환율 상승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359.3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43원 높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환거래 손실은 대부분 포지션 변동이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며, 환율 상승은 보유 채권 평가 손실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사들의 운용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환율 변동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초에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환율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실적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율 변동성 확대가 증권사 외환거래 손익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며 "증권사는 은행보다 외환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고 해외 자산 비중도 낮아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 지난해 결산감독 집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회계기준(IFRS17)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회계가 '2024년 결산' 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와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IFRS17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감독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해지율 합리화, 공시·외부검증 강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 등과 6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이슈는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 회계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과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 ▲부채평가시장대손해조사비 반영 ▲CSM 상각률 산출기준 '예상치' →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로 변경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갱신형 보험 부채평가 대상기간 '갱신일' → '갱신가능한 최대단기'로 변경 등의 변화를 이뤄냈다.

/허정윤 기자

6.7兆 규모 해상운송 계약 체결에 '주목' 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개발

metro 관심종목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차·기아와 장기계약 체결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 15% ↑

증권사들이 현대차, 기아와의 해상운송 계약을 각각 갱신한 데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현대글로벌비스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3일 전거래일 대비 0.52% 상승한 1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15% 급등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현대차와 기아와의 5년간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운송 장

기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계약은 기존의 3년 단위 계약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계약 금액 또한 대폭 증가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장기운송계약 갱신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과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며 "연평균 환산 시 약 1조3400억원 규모로, 이는 2021년에 체결한 3년간 1조9000억원(연평균 6550억원)과 비교해 연간 계약금액이 105% 증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달아 상향했다. 대신증권은 현대글로벌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하나증권 역시 기존 15만원에서 16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관희 기자

오늘부터 연계 테스트 시행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기관투자자와 연계테스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13일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7월부터 NSDS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6일부터 기관투자자가 구축한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테스트를 시행한다.

NSDS란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며 전달 받은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일부

터는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도가능잔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기관 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연계테스트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30여개사(공매도 거래비중 90% 이상 점유)가 참여할 예정이다. 2월까지 NSDS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이후 연계테스트를 완수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거래소는 NSDS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NSDS 개발상황 공유,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안내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